

도시와 농촌의 피복비 지출 행태 비교

이 미 영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교수)

기존의 피복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도시가계연보의 기초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어 전체적인 피복소비에 관한 연구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소비실태조사,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뿐 아니라 비도시 지역인 농촌의 피복비 지출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1인당 피복비 지출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다가 1980년을 중심으로 일시적 감소 추세를 보이며, 8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 배우자(주부)의 연령, 배우자의 취업 유무, 가구주의 직업, 가구원의 수, 교육수준, 등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도시가계연보나 도시가계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도시가계조사는 매년 조사되는 조사자료의 시계열성과 다른 자료에 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계의 소비지출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인이상 가구 중 5,200개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 가구의 소득만이 조사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1년 이후 5년마다 실시되어 매년 소비실태의 추이를 볼 수 없으나, 1인 가구와 비도시 가구를 포함한 27,000개의 가구의 소득과 소비실태가 조사되고, 농가경제자료의 경우 가구소비실태가 포함하지 않는 농업종사 가구의 자료를 포함하는 등 도시가계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1996년,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와 농가경제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 비도시지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 농업종사 가구별로 ① 피복비 등 항목별 소비 지출 (가구당 소비 지출액, 가계 소득 중의 비중, 가계소비지출 전체의 비중 등), ② 소득, 가구 특성 등의 변수를 통제 했을 때 피복비 등 항목별 지출의 구성, ③ 피복비 등 항목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분석 방법은 ANOVA 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총 지출에서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집단별로 피복 지출을 비롯한 항목간 지출이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피복비의 경우 도시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도시지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였으며, 농업종사 가구의 경우의 지출액이 가장 낮았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두 집단간의 (도시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 비도시지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피복비 지출 중에서 신발의 비율이 도시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가 높게 나타났고, 의의의 비율은 비도시지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가 높게 나타났다.